

조선 기록문화의 저력에 대한 기록

오항녕 저, 『후대가 판단케 하라 : 조선실록의 수정과 개수』,
역사비평사, 2019

정재훈(Jung, Jae-hoon)*

동양의 기록문화 전통 가운데 ‘실록’이 차지하는 위치는 각별하다.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한 중국이나 한국에서 각 왕조에서 실록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당대의 역사를 정리한 것은 다른 지역이나 문명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이다. 매일 국가의 공식적인 일이나 사건을 정리하여 후대에 남기고, 또 이를 통해 왕조국가의 지속성을 유지한 것은 인류의 문명사를 통관하여 볼 때도 매우 드문 사례라고 판단된다.

그만큼 중요한 역사적 기록인 실록에 관해 그 중요성만큼이나 충분히 연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중국의 실록 연구는 차치하고 현재 남아있는 조선실록(일반적으로는 조선왕조실록이라고 부르나 본서의 표현에 따름)에 관해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깊이 있게 알고 있을까하는 의문은 비단 필자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조선시대를 연구하는 데에 수없이 많이 인용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록문화 전통을 탐구하는 데에도 기초 중의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실록에 대한 본격적인 의문에 대해 해답을 제시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본서에서 소개한 조선실록의 수정과 개수에 관한 문제이다. 필자와 같이 조선시대를 전공하며 실록을 수시로 참조하는

* 경북대학교 사학과 교수(jinsojung@knu.ac.kr).

경우에도 수정과 개수가 이루어진 선조, 현종, 숙종, 경종대의 실록은 그 내용이 흥미로운 동시에 왜 꼭 이렇게 수정하거나 개수하였을까 하는 의문을 계속 제기하게 만들었다. 자주 찾아보는 인물에 대해 왜 이렇게 극단적인 다른 평가가 이어질까? 이것이 당쟁의 결과물인가? 이런 방식의 평가는 믿을 만한 것인가? 등의 의문이 단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해답은 많지 않았다.

해방 이후 한국사 분야에서 식민사학의 극복을 내걸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사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사료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이를테면 저자도 지적하였지만 실록의 수정이 ‘격렬한 당쟁의 결과’라는 식민사학의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또 새로운 정치세력, 예를 들면 계해반정(인조반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설명 방식 역시 비슷한 논리로 연장되어 반복, 전파되었다.

이렇게 인식할 경우 과연 역사는 정치적으로 승리한 자들이 자의적으로 기술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가의 물음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비록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실 승리한 정치세력이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정 또는 개수한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조선실록에 객관성을 부여할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엄중한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실록에 대해 그 사이에 이러한 본격적인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역사적인 관점에서나 기록학적인 관점에서나 분명 책임을 방기한 것임에 틀림없다.

오항녕 교수는 이러한 질문에 정면으로 맞서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선조실록』의 수정은 정치세력의 ‘의도성’이 아니라 임진왜란으로 인해 손실된 사초 때문에 실록의 무결성(無缺性)을 해친 것이 이유이며, 수정의 방향은 사실의 보완과 사론의 수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정의 정당성은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남김으로써 후대에 판단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본문에서 자세하게 예를 들었지만 남인과 북인, 서인에 대한 인물평 역시 당색(黨

色)이라는 정치적 요소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런 점은 『현종실록』의 개수에서 더욱더 드러났다. ‘수정’보다 ‘개수(改修)’는 그 수정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많은 수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실 자체를 수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수정은 주로 사안이나 인물평에서 이루어졌다. 수정이나 개수가 아닌 보궐정오(補闕正誤)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숙종실록』의 수정과정 역시 사실의 보완과 사론의 수정이라는 방향은 이전과 동일하였다. 상반된 기록을 남겨두어 후대의 판단을 기다린 것도 마찬가지였다. 마지막 수정본인 『경종실록』의 경우 몇 가지 사태와 사안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였지만 공통된 인식을 보여주는 점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서의 수정과도 달랐다.

이러한 구체적인 수정과정의 검토를 통해 오 교수는 실록을 수정 혹은 개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같이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고 해석이나 관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던 점이 다른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록 수정의 역사를 당쟁의 관점에서 편협하게 이해한 것이 얼마나 부분적인 이해였던가를 증명해주고 있다. 나아가 역사를 승리한 편이 자기 구도에 맞게 서술한다는 일반적인 인식 역시 얼마나 제한적인 생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만일 정말 당쟁의 관점에서 승리한 자의 기록으로만 삼고 싶었다면 굳이 수정하여 남길 필요가 있었을까? 어떤 형태로든 기록을 지우거나 제거하여 하나의 기록만을 남김으로써 기억투쟁에서도 승리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하지 못했던 것을 단지 당시 물력의 부족이나 정치권력의 절대성이 모자라서라고 핑계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정치권력의 우위를 점하는 것이 기록을 마음대로 덧붙이거나 지울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조선왕조의 기록자들은, 곧 정치인이자 학자, 관료였던 이들은 비록 정치의

한복판에서 기록의 엄밀성을 추구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가운데서 기록의 불완전성을 이해하였고, 이를 수정, 보완하는 방법도 끊임없이 고민하였다.

정파를 넘어서서 사실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었으며, 때로는 정파에 따라 첨예하게 반대로 보는 견해나 관점도 있었다. 이러한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불완전한 채로 남겨서 역사의 판단을 받으려는 태도는 결국 역사의 효용성을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데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본서는 이러한 조선의 역사인식과 기록에 대한 태도를 적절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조선과 그 기록, 나아가 조선문명에 대한 또 다른 안내서로서 손색이 없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